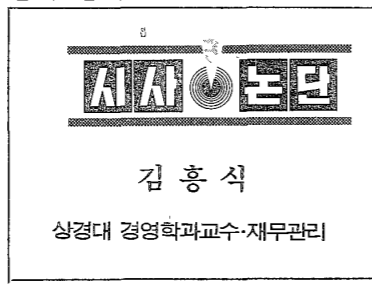


금융실명제에 이어 지난 11월1일을 시작으로 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었다. 금리자유화란 돈의 가격인 이자율이 시장의 수요공급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에 대해 규제를 가해 왔던 일반적 목적은 금융기관간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여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부문의 안정이라는 목적보다는 경제발전이라는 지상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선 비용으로 자금을 전락산업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규제해 왔다. 금리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통제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농업부문과 함께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집중적인 시장개방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번에 발표된 2단계금리자유화 조치도 금융부문의 효율성제고라는 내부적인 필요와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압박이라는 외부적인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단계 금리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금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출이 자율화 되었다. 이 번 조치로 제1금융권은 총여신중류 중 68%, 제2금융권은 1백%가 자율화됨으로써 정책금융의 규모등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결정은 이제 은행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둘째, 예수금면에서는 2년이 상 예금 및 신탁금리, 3년 이상 적금금리 등 2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가 자율화되었다. 이번 조치로 제1금융권은 예금중류의 37%, 제2금융권은 60%정도가 자율화되었다. 이제 남은 자율화 대상금리는 여신면에서는 대저자금 및 한은 제할인대상 대출뿐이고 수신면에서는 1, 2금융권의 2년 미만 수신과 요구불예금등이다.

기업은 가장 높은 금리로 차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시에 신용평가가 강화되어 대기업에 비해 신용이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확보하기도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신용도에 의한 금리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은행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기는 높은 대기업대출보다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김홍식
상경대 경영학과교수·재무관리

화는 이제 투자의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고 차입하는데만 관심을 가진 기업에게는 존속과 성장을 위협하는 비수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타인자본에 많이 의존한 기업은 고도성장경제에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불경기나 안정성장경제에서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길은 투자안의 경제성을 엄격히 분석하여 자본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또 금리의 예측과 외 자조달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여 금

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관리 면에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방만하게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정책을 포기하고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위험이라는 개념도 재정립하여 자산과 부채의 운용시 위험을 고려한 수익성개념에 모든 의사결정이 기초해야 한다. 정확한 금리예측은 금융기관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자산과 부채의 포지션을 관리하는 자산부채총합관리(ALM)의 도입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적응노력도 중요하지만 금리자유화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일 것이다. 정부는 금리자유화이후 이자율추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할 것인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가계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의 불만과 이자율 상승등을 이유로 자율화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다. 자율화된 금리로 모든 경제주체가 의사결정한다는 신념을 심어주면 각 경제주체들은 자율화된 금리에 의해 조정해 나갈 것이다. 1988년과 같이 금리자유화를 시행했다가 이자율이 오르니까 유야무야시키는 일은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수는 많지 않다. 더구나 과거의 관행과 사고를 바꾸어야 하는 개혁정책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의 수는 더욱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가 바로 이 중요한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면 경제 구성원의 의사결정은 정책의 규칙내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은 미루어질 수 없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일단 실행에 옮기면 원칙이 후퇴되어서는 곤란하다.

일관된 정책의지가 성패 좌우

금리 자유화의 성공적 정착 위해

금리자유화는 오히려 가계와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리자유화 시의 가장 유망한 고객으로 우량중소기업의 가계시장을 들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기업은 사실 지금까지 금리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다. 규제금리는 시장금리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혜택이었다. 규제된 금리하에서는 누가 많이 차입할 수 있는가가 기업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2년미만의 수신금리는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자율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가계와 중소

기업의 교섭에서 자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규제금리상향화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기업의 최적 전략이었다. 이제 자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구조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자유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는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도태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효율성을 유

개정 노동법 독소조항 '근로자 파견법'

전국민 90%의 지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가 노동법 개정에서 있어서는 계속적인 연기를 표명하는 가운데 유독 고용관계법에 대해서만은 7월30일 법안으로 확정했다. 9월 국회에 입법예정된 고용관계법은 스고용 정책 기본법 제정 스고용보험법 제정 스적업안정법 제정 스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 파견법)이다. 그런데 다른 고용관계법은 다 미뤄두고 근로자 파견법만은 올해안에 꼭 실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파견법을 두고 각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현재 쟁점과 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의 내용과 문제점, 각계 입장을 살펴보자.

근로자 파견법의 내용

근로자 파견이란 기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용역회사)를 통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역업체는 경영, 관리비용과 이윤을 공제하고 파견된 근로자

는 30% 낮은 임금을 받게되며 이 30%는 용역업체가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조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가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에 위배된다. 결국 근로자 파견법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고 중간착취는 반사회적 인식매매행위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저임금과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유해작업에 배치된다는 점. 둘째, 산업재해를 입거나 기타 권리상의 침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집단 해고 셋째, 파견근로자가 사본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파견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중간 안정장치를 전혀 두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측의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듯하다. 현재 노동부의 방관속에 불법화된 파견근로자 현실에 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

성화된 파견근로에 대한 중앙경제사의 사용업체 실태조사는 제조업 20%, 중소기업 12%, 친명미하 중기업 30%, 대기업 33%, 금융보험 45%가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가 알고 있는 실 예로 부천에 있는 '해포킹'의 경우 정규직원 30명인데 비해 파견된 근로자는 150명이고, 조합에서 공적인 문제로 파업을 일으켰을때 파견근로자로 업무가 충분히 대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해고 위협속에 시달리고 있다.

각계의 입장

그렇다면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각계 입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정부측은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발전, 정보 산업화가 진행되고 전문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수요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노동력 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한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고령자, 여성, 전문적 지식, 기술을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유

용노동력 활용이란 면에서도 근로자 파견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측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적업안정법 확충을 통해 파견사업의 필요를 충족, 파견사업이 변질한 원인은 노동부의 인력개발 정책의 미비 탓으로 보고있다.

한편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확산은 시장의 필요 때문이며 정규직이 싫어하는 일은 파견근로자로 대체할 수 밖에 없고, 파견근로자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80년대 이후 세계적 현상으로 파견근로자가 확산되는 것은 비정규직 취업형태중 시장의 수요공급에 가장 일치하고 파견업체의 인력,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들어 정부측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사용자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기업의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업안정소 설치 등을 통해 공공기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공사업 확대, 자율적인 협회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측면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돈이나 챙기는 모습은 이윤배반적인 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노동법 개정

에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이고 기만적이라 할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의 본질

그러면, 근로자 파견법에 숨어있는 자본의 노동자 분할전략을 살펴보자. 결론이나 연월차유가때문에 이른 원부족, 자동화기계에 따른 단순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정규 노동자 감소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단체행동시 기업주가 파견근로자로 대체시켜 교섭력 또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에 의해 일자리를 위협받는 정규직 노동자간의 경쟁관계가 증폭되어 비인간화되고 임금수준을 떨어뜨려 광범위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 결론적으로 근로자파견법은 사활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고 기존의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용역사업에 대한 폐지는 현재 파견노동자들을 실직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조합의 조직력도 유지, 강화될 것이다.

강 연 회
(우리노동문제연구원·조직상담)

사설

교육개혁 의지 있는가

사람대학은 아직 정지해 있다. 문민정부가 지지하는 새정부가 들어서고 무수한 교육개혁공약을 제시했던 교육대통령이 취임했는데도 사람대학은 전진은 커녕 비방끝에 불안전하게 서 있다. 비방끝으로 사람대학을 내모는 것은 개혁의지 없는 교육부와 비효율성으로 정철된 사학재단일 터이다.

사회의 도덕적 추락은 사학들의 부정부패사건을 필두로 교수의 저조한 연구실적, 면학분위기를 잃은 캠퍼스, 비효율적 학생생활동포리를 쓴 홈집내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작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나 그에 따른 교육개혁정책, 교육재정확보등 사학을 올곧게 세우는 근본대책에 관해서는 유독 과묵하다.

실제로 얼마전 세간에서는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7가지 교육정책의 난제에 대해 '들춰도 들춰도 끝없는 대학비방과 우려를 표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서 새정부출범당시보다 저하된 사회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결코 사학의 문제는 구성원들의 무능과 안일 탓으로만 귀결될 일이 아니다. 임시부정에 대한 사정이 만치 교육개혁인양 한차례 휩쓸 뒤 정부출범당시 내건 교육예산 GNP 5% 확충공약 이행은 현 여권상 불가능하다는 태도에 대한 당국의 설명은 전도되어 있다. 경제를 먼저 살려야하니 교육재정확충은 뒷전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사학현실은 대학스스로가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사학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또 등록금은 오를 것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일동안 경주에서 열린 전국 사립대학교 기조조정·처장협의회에서는 94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책정률 20%선으로 할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다시 허리를 졸라매야 할 모양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을 상징하던 상이탑은 '말개탑'이라 불린다. 시골에서 소말이 학부모들이 보면 등록금이 오르는 사학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교육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학의 모습인가. 사회발전을 선도해야 할 교육이 사회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에 걸맞은 교육수준이 뒤떨어지는 낙후성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대학과 학부모의 허리띠만을 졸라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후진국의 그것에 다를 바 없다.

무수한 공약이 당장 사학을 살릴것만 같았던 모습은 이제 단숨에 허공에 그칠 태세로 바꿨다. 이제 대학은 어디로 향하는가. 어떤 이들은 재단이나 대학구성원들이 긴장하려면 대학시장의 해외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고질적인 우리 대학의 폐쇄성과 정체성을 극복하려면 외국 대학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경쟁력이 마련되고 질적 개선노력도 생길 것이라고 한다. 일면 타당할 는리이다. 지금까지 교수연수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급기시되고 전입등록이 매년 제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사학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은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안국을 해쳐 나가는 의지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방끝에 선 대학의 실정에 정밀가검으로 외국대학을 유치해 경쟁시킨다는 발상은 우리교육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대학의 빈곤을 구성원의 해결에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 계속되는 정부의 무관심적 교육 발상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

근본부터 바뀌어가는 교육개혁을 선행할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東國漫評
김상남

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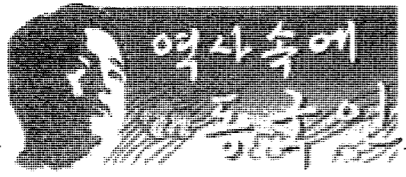
전파의 흐름을 막는 산이라는 장벽 - 한국이동통신이 기술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산도 많고 골도 많은 우리나라 -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지형에서의 이동통신은 선진국의 경험도 별 도움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산에 가로막혀 가닿지 못하는 전파 - 한국이동통신 배배 012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첨단 이동통신 기술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자유로운 무선호출을 서비스해 드립니다.

배배 012
한국이동통신

조국과 민중을 위해 전력하라

남한혁명의 불꽃이 되고자 했던 통혁당 조직자의 삶



글심는 순서

1. 일제하 중앙학림의 민족해방투쟁
2. 사상의 불꽃, 김중태
3. 독재에 쓰러진 젊음, 김중배
4. 평범한 투사의 삶과 죽음, 노일현

김형욱: 통일혁명당이던 어떤 당인가?
김중태: 우리당의 명칭이 보여 주듯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적인 결사이다.
김형욱: 당선이 그 결사를 지시한 것인가?
김중태: 각자의 신념에 따랐을 뿐이다. 당시나 박정희가 특권층을 대변하는 민주공화당을 건설하였는데, 우리도 민중을 대변하여 통일혁명당을 건설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김형욱: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알고 있는가?
김중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일이다.
김형욱: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별대로 명칭을 재판관으로 생각한다. 당시 한 사람 죄명만도 1백81가지이다.
김중태: 어떻게 내 죄명이 1백81가지인가? 정치탄압을 가한다면 나에게 1천800가지의 죄명을 덮어씌어도 좋지 않은가?
1968년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첫 공판후 법정에서 벌어진 통일혁명

당 서울시청당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중태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격론이다.
 이 공판부터 1심판은 17회 공판이 계속 되었고 1989년 1월 25일 통혁당 사건 선거공판에서 35명이 기소되어 김중태, 김철락, 이문규, 이관학, 이승환, 신영복(2심재판시 무기징역, 88년 가석방) 5명에게 사형, 이재학, 오병철, 신광현, 정중소 4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26명에게는 최고징역 15년에서 징역2년까지의 형을 선고하고 통일혁명당은 북의 간첩단, 노동당의 하부조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불온'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굳어져 버렸다.
 이 통혁당의 조직자 김중태.
 그는 1929년 11월 24일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냉천동의 어느 빈둥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식민지 조선의 30년대 상황으로 그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원속에서 그는 고학으로 일 본 마포중학교를 졸업하고 44년 8월 식민지 열혈 청년으로 대구의 반일독서회에 참가하였다.
 이때 해방직후에는 여운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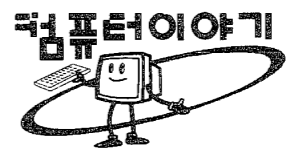


◇ 김중태는 분단의 사슬에 얽힌 조국과 민중을 위해 식민지조선의 열혈투사의 삶을 이어나갔다. 사진 왼쪽은 젊은시절의 모습, 오른쪽은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사형되기 직전 재판정에서의 김중태.

이 간직해둔 죄의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50년 3월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경북안동사범학교와 포항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50년 노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합법 대중단체인 '청학회'를 조직하여 대중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60년 419 직후에는 다시 대구를 중심으로한 노동운동에 관여하여 경북노동연합의 기관지 '한국노동신문'의 발간을 주도한다.
 김중태. 그는 교사로서 정치가로 노동운동가로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접함으로써 스스로를 단련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창조적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김중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투쟁하였으며 사회 부조리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민감하였다. 이런 그에게 419의 현실적 실패와 516이후 강력한 반공정권의 등장으로 남한에서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지도력, 조직력이 고도화된 규율있는 비합법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이런 혁명적 열정과 고인이 구체화한 직접적 계기는 김수상(김승무)과의 만남이었다.

김중태는 김수상을 통하여 최영도를 소개받고 이어 64년 3월16일 김수상의 안내로 1차월북하여 3월 20일까지 체류한다. 북한에서 돌아온 그는 "혁명에 대중을 자각하게 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당의 일시강령과 행동목표를 선전하고 통일혁명당 조직의 존재를 내외에 알리며 민중에게 한국사회의 모습과 부조리를 올바르게 꿰뚫어 보게 해야 한다"며 그의 친조카 김철락과 이전부터 알고있던 이문규, 대학후배인 김진환과 함께 대중교양 잡지인 '청학'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 '청학'은 64년8월 창간호부터 67년7월 폐간호까지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학생과 지식인 사이에 공감을 형성하며 45년4천여부가 발행됐다.

65년 4월 2차 월북한 그는 김일성을 만나 "남조선 혁명을 우리들으로 앞당겨 성취하겠다"라고 다짐하고 5월간의 북한 체류 뒤 돌아온 그는 김철락, 이문규에 대한 간부교육사업을 실시하게 전개해 나가며 '청학'을 통한 대중교육사업, 삼창산업을 통한 재건사업, 경북지역의 조선노동조합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65년 11월 김철락, 이문규에 대한 교육의 성과가 뚜렷해지자 스스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족해방전선 책임자 김철락, 조국해방전선 책임자 이문규로 양대 조직체계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학술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당 소조를 구축하고 68부정선거반대투쟁과 미국부통령 후보리 방한반대투쟁 등 대중투쟁, 무력투쟁, 범정부투쟁으로 수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주에 대한 지향을 갖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김중태.
 암울한 일제 식민 치하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을 키운 그에게 붉은 오랏줄에 묶인 곳, 분단의 절조장 속에 떠나 없이 갈라 버린채 갈라진 조국을 절조장을 드리웠다.
 1968년 7월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오랜기간 복역을 일관하다 68년 9월 29일 탈옥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고 69년 7월 1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검은 보자기로 두눈을 가리우고 맞출이 목에 걸린채 죽은의 직전에 외친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생사를 돌보지 말고 조국과 민중을 위해 전력하라. 이것은 반체투사들의 인생이다. 조국해방투쟁이다!"
 지주와 통일의 길을 울곧게 살아온 김중태. 그러나 아직 김중태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의도적인 왜곡과 은폐로 그의 삶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분단의 절조장에 갇힌 우리의 눈이 흐리기 때문이다.
 (양수정 기자)



컴퓨터의 다이어트(?)

노트북등 휴대용 컴퓨터 등장 어디서나 신속한 정보습득

명동 길거리에서 '사장님~'하던 길가던 사람이 모두 돌아다 본다는 이야기도, 회의중 전화벨이 울리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모두 핸드폰을 꺼내 듣는 것도 이제 텔레비전 속의 일만은 아니다.
 급속한 컴퓨터와 통신기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여러면에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주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포터블(portable)과 디지털 통신(digital communication)의 결합이다. 노트북(note-book:노트 크기로 휴대용 컴퓨터)으로 대표되는 포터블 컴퓨터 시스템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책상위에 놓여 있어 으스스하고 있어야 했던 명칭 좋은 386, 486이 노트북 크기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다. 그것도 겨우 30%이라는 경이적인(?) 몸무게로 말이다. 하지만 그 능력은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막강하고, 빠르고, 작고, 간편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로 인해 노트북은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없어 충전지로 서너 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트북의 등장은 그야말로 전철이나 버스안에서도 테트리스를 즐길 수 있는 24시간 오락 시스템으로도 적합하지만 그보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일컬어지는 한

최은혁

(대학원 컴퓨터학과 석사과정)

해커, 범집자인가

공익위한 정보개방이 본래취지

일반인들에게 해커(Hacker)란 컴퓨터의 범람으로 생겨난 '신종 컴퓨터 범죄자'라는 인식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뜻을 찾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친다. 'Hack:마구 자르다. 난도질하다'고 이상의 의미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사실 소위 해커라 지칭하는 컴퓨터광들의 해킹이라는 행위는 컴퓨터 범죄자들의 그것과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몰래 쓰거나 그 정보를 바꾸는 시스템 해킹에서부터 디스크에 걸린 락(Lock)을 푸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동은 정도라기보다는 불법적인 것이 가깝다.
 그러나 해커들은 그들의 해커로서의 자질을 이러한 컴퓨터 범죄자와의 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텝퓨터에 대한 접근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 받아서는 안되며 완전한 자유를 보장되어야 한다. 그로인해 정보는 개방되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컴퓨터 범죄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해킹을 하지만 진정한 해커란 이러한 해커윤리에 의거해 순수한 해킹 행위만을 즐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커의 출현은 최초의 컴퓨터가 생겨났을때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해커의 시조라 불리

동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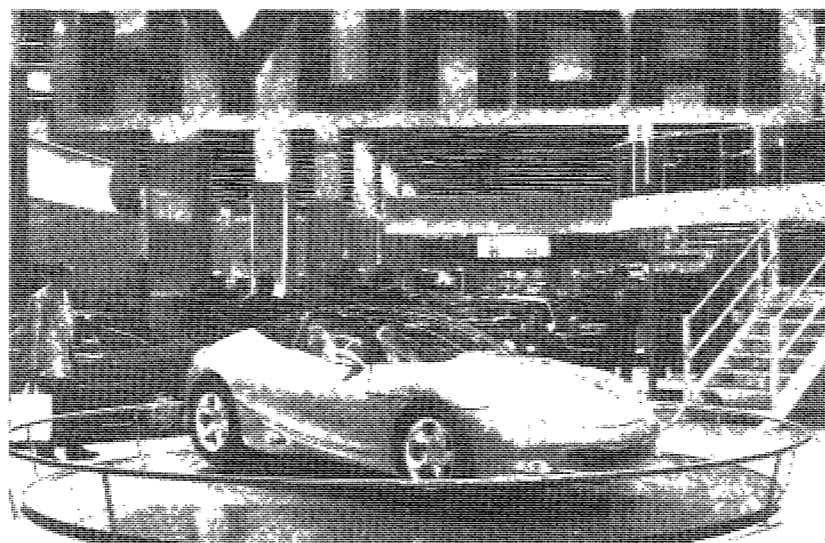
지난주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각 가정으로 기성회장 명의로 된 한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지난 학기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문을 일으켰던 기성회운영에 대하여 기성회는 민주적절차로 목적에 따라 성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성회장 면담적상에서 총학측이 요구한 경주캠퍼스 기성회 구성부분은 '한 대학에 두개의 기성회를 둘 수 없다고 못박고 말미에 대학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될 때에는 이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논점을 표하고 있다.
 이 편지로 지난 학기 경주캠퍼스

배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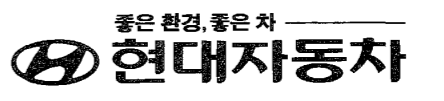
학우들이 시험연기를 불사하며 시정을 요구한 기성회 문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 편지에 대해 총학생회와 각

위해 학생회 간부들과 백삼당 앞에서의 단식과 녹야원에서의 협서식, 결구농성등을 함께 했던 학우들은 얼마남지 않은 일만 남기려 하는 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한 학우는 "학생들이 시험과 하계방학을 1주일 이상 미뤄가며 함께한 사업인데 심지어 중요한 시험은 얼마남지 않은 일만 남기려 하는 학생회의 태도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도 아침-저녁으로 학교 곳곳에서는 한표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고 총학생회 선거일인 오는 25일까지 학우들은 공약의 홍수속에서 허우적거리야 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학우들은 듣기 좋게 포장된 달콤한 공약보다는 작더라도 진정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이 주목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현철 기자)

도쿄에서 디트로이트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그곳에선 세계 자동차들의 올림피아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트로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 자동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자동차들과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자랑스런 모습까지도,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의 수를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세계 3대 모터쇼!
 높은 급여, 복리후생 다 좋지만 큰회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부가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 멋진 기회였습니다. 입사 3년차의 사원에게 이런 기회와 도전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해준 나의 회사, 현대자동차.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퇴행하는 정부의 사학 지원

문민정부 교육개혁공약에 발등 짚힌 사립대학

내년 정부예산중 사학재정지원 2%에 불과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에 의해 지탱유지되고 있다. 양적 규모로 보면 85%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비록 학교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백년지대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사학은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의 진원지로서 조국광복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광복이후에는 국민국부 및 조국수호의 대의를 맡았고, 그 이후에는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양성의 주역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 없이는 영위되지 못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그 존재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와 투자를 인식하면서 절충한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의 국고보조 비율을 1989년까지 1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누누히 걸쳐 강조했던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9년 2월까지만 2%를 초과하여 대정부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도 단계적으로 사학에 대한 지원규모를 증대시켜 국가적 중요성 공·사립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운영비의 20%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교육부문계획(1992-

1996)에서도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표 참조)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으나 알아 할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노파심에서

그러나 하던 사립대학을 포함한 교육은 항우권력정착을 위한 정책구상의 타깃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 없이는 영위되지 못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그 존재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명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규모가 사립대학 전체 재정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언어도단아에서 아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그런가하면 사립대학 지원을 강조하고 건의하고 공약했던 주체에 대한 불신마저 서늘해지는 것이 사립대학 관계자들의 슬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지라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황적 절실성을 비교교육학적 측면에서 재강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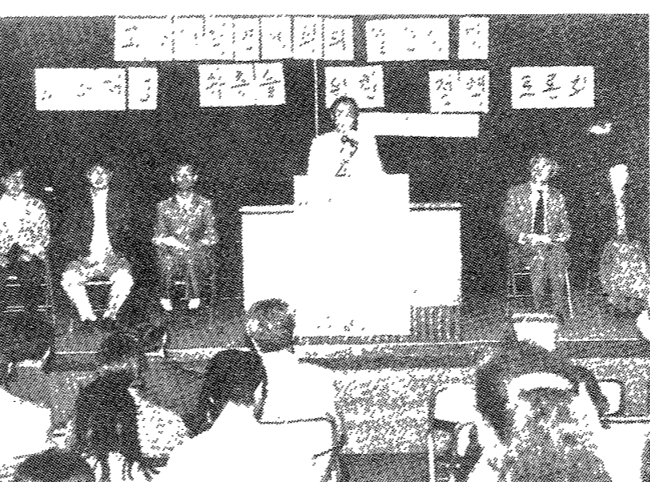
사립대학 국고지원 계획

구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계
지원액(단위:백만원)	45000	60000	75000	95000	115100	390000
대학운영비 비율(%)	30	37	42	50	55	-

※자료:교육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교육부문계획(1992~96), 1991

제시해 보면, 오늘날 세계 선진국은 GNP의 5%이상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국방비 부담이 큰 이스라엘마저도 지난 수십년간 계속적으로 GNP의 8% 수준을 교육에 투자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크고 국립대학 위주의 지원정책을 옹호하고 있는 일본은 사립대학 전체예산 중 15%수준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또한 전적으로 교육시장을 자유경쟁에 맡기고 있는 미국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8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때, 명년도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20%는 부당하기 이를데 없는 처사라 하겠다.

이렇게 Harbison과 Myers는 1960년대 초에 75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교육적 연구를 통해서 선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곳곳에서 구호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중 사립대학의 재정 지원의 인색함에서도 잘 나타난다.

진국 내지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 하려는 국가라면 고등교육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주어 투자하여야만 된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우리는 지금 분명한 고등교육의 절대적 큰 비중을 점용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고도 빠른 길이라 하겠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은 1990년의 경우를 놓고 보면, 구도적으로 법인의 전입금이 영세하여 사립대학 총수입의 13%정도였다. 또한 국고보조금도 빈약하여 사립대학 총수입의 0.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결과적으로 총수입의 70.5%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였는 바, 그러한 상황은 여견해왔으며 그것이 명년도 사립대학 재정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될 판이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부, 경제기획원, 그리고 청와대가 그러저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의지하지 않고, 산술적 확충의 의미부여에 급급하고, 공약이 그치는 듯한 판명적 자세를 취하는 나머지 인색한 투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잠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립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상형적 이해가 부족한 정책결정 및 예산배정자들이 절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⑮ 상경대 설명기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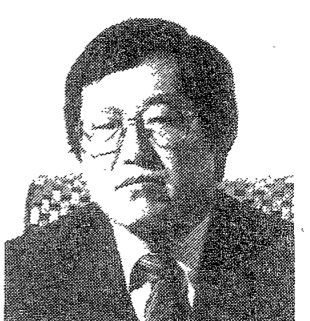
“현시기 과실습공간마련 우리” 컴퓨터실 통합후 시설 확충 계획

지난 87년 법정대학이 법정대학과 상경대학으로 분리 개편되면서부터 상경대학은 현재 야간학과를 포함하여 총 7개학과로 규모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상경대학의 특성상 컴퓨터 이용 학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설 및 공간마련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에 상경대 설명기(무역학)학장을 만나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상경대 컴퓨터 운영실태와 시설확충에 대한 계획은
= 현재 컴퓨터실 2층과 5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우선 컴퓨터실 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시설확충이 가능할 것 같다. 5층에 있는 컴퓨터실은 경제, 회계, 정산 3개학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겠지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컴퓨터실이 정리되는 대로 시설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컴퓨터 개발시간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개발시간 연장을 위한 방안은
= 2층에 있는 컴퓨터실은 주간에 얼마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야간 학과의 경우는 내년에 이 부대할 계획이 있다.



상경대 설명기 학장(오른쪽)은 컴퓨터실 통합후 시설확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학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습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강의실 부족문제와 관련, 공간확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은
= 타 단대에 비해 상경대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각 학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습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통을 중용하지 않는 한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상경대 여학생들은 휴식공간 부족에 대해 여학생 휴게실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 입장
= 학생생활에 여학생휴게실이 있는데 각 건물마다 여학생 휴게실을 마련할 수는 없다. 전통관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내년에 벤치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성의있는 동행, 시종일관 경청한 사무대장이 있는 한 미래사의 불교의 전망은 밝으리라 생각하며 참가한 모든 분들께 불교불교의 기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보살미하살

조용길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85년도 일본대정대 3회 한일 학술발표회에 참가한 기억이 떠오른다. 말끔히 단정된 신축 국제학술회의장, 밝고 환한 방음장치와 모든 기자제 시설... 그러나 본교에서의 이번 학술교류대회의 시설이 그에 미치지 못하나 끝까지 지원해준, 학교당국과 여러교수님들의

한일·불교학술교류회의 참가기



◇자매교류학교인 일본 대정대의 제6회 한·일 불교학술교류회의가 지난 4일 '미래사의 불교'라는 주제로 열렸다.

정명환 한국교 10일 상담, 제6회 동국대-대정대 한·일 불교학술교류회의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번의 주제는 '미래사의 불교'이다. 일본측에서는 이시카미(石上善雄) 일본대정대 대인학

다종교시대의 불교미래 전망

21세기 교단의 사회적 기능 발전상 논의

필자는 물론 사회자로 참여하였고 그의 토론에는 흥분적발론, 강, 오형근 불교대학원장, 이법산 선학과교수, 사회와 히로세교단교수 등이 참가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의 내외적 조성이 이번 학술세미나의 특징이라고 결론짓는다.

다종교시대의 불교의 특성성이 놓여 모든 종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먼저 불교대 령자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후지카사오 교수의 기대되는 불교의 역할에서 부처님의 대가설범과 수범수계하는 상형논리의 전개하고 불교교단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교교단의 사회적 기능발전과 현재까지의 정신계를 이끌어 가는 양면에 대한 고찰이 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거의 1백%의 아기가 이제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70%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의 생사에 대한 종교적대치가 긴요한 21세기의 과제란 지적이다.

한보광교수는 교단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결국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교단 자체의 재정립을 촉구하여 도시불교와, 본사중심제, 제가법사의 위상, 노년과 출가제 등 불교대에서는 논의되어야 할 이차이들을 종합 진단하였다.

이차이교수가 대독한 이차시(一止止)교수의 논문요지는 일본 불교의 개조는 성덕태자로 법연, 신평, 도원을 중심으로한 전말과 조로목교도실용불성이라는 일체론에 대한 애초종교사상이 회복되어야 불교교단의 사회적 기능과 지구요람법사의 국토보존이 유지된다는 의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민택진 교수는 불교와 과학정신이란 논고에서 빛은 전자기 복사파의 현상에서 진공속을 직진하고 있다고 하고, '일체실용불성' 이듯이 일체 존재는 빛에 대한 광학적작용에 의해서 연결되고 빛과 광파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불교와 연결시키려는 실험결과를 설명하였다.

변조광명(遍照光明) 법신불 부처님은 만법의 바탕인 불성(佛性)을 형성상 시킨분으로 지혜광명의 빛

94학년도 각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관리사과정, 불교학(국문과), 불교사, 불교사(국문과), 불교사(국문과), 불교사(국문과)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관리사 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행정관리사과정

1. 입학자격: 정부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 각급의 영예급이상 공무원, 정부부처기반의 일원, 사기업체의 일원, 사회복지단체, 기타 본행정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3. 11.8(월)~12.7(화) 본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3. 12.11(토) 오후 2시 본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전화: 220-3101, 3102

경영관리사과정

1. 입학자격: 회사,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각급, 공단,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타 본행정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3. 11.22(월)~11.30(화) 본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3. 12.4(토) 오후 2시 본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전화: 220-3105, 3106

정보산업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지역개발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행정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경영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교육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정보산업 관리자과정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2. 지원자격: 석사학위취득(국문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5. 전형방법: 1) 석사학위취득: 영어, 전공, 면접, 2) 석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점: ① 조세정책연구원 공무원으로서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내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전화: 220-3077, 3078

지역개발 관리자과정

1. 입학자격: 정부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 각급의 영예급이상 공무원, 정부부처기반의 일원, 사기업체의 일원, 사회복지단체, 기타 본행정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11.8(월)~11.19(수) (토, 일요일 제외)
3. 전형일시 및 장소: 원서 접수: 11.23(화) 14:00, 11.24(수) 13:00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문의전화: (051)770-2291, 2292

돌부처와 동고동락한 민중신앙

바위신앙-불교사상 결부해 석불제작 경주남산 중심으로 민중불교 꽃피워

신라불교문화 속의 민중들의 이야기는 일연스님이 집필하신 삼국유사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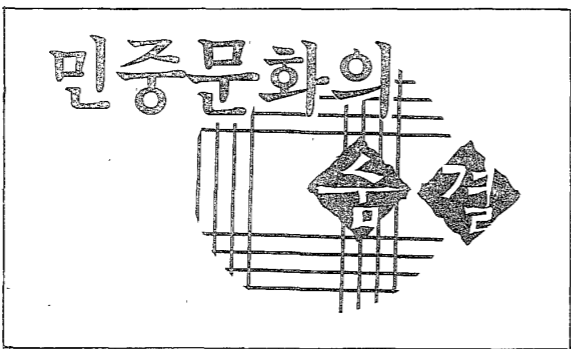
본 내용에 들어가기전에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책을 쓴 일연스님이나 저술배경이 민중적인 요소가 진하기 때문이다. 증발왕은 그의 높은 덕을 기려 국준으로 책봉하고 가까이 있기를 권하였으나 그는 공상에 있기를 싫어하고 어머니 병환을 빌자하고 시골에서 설법과 불경연구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의 활동기는 고려중기로 봉고군 침략으로 수도가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라가 무척 어지러운 시대였다.

경주남산 어느 기슭에서 민중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었던 황룡사 구층담이 며칠땀땀동안 몰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국민들이 봉고공속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고 치솟는 분노를 감출길 없었을 것이다. 속세를 버린 그가 문외의 저술을 시작한 것은 민족의식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바른 민족의 역사를 알릴으로써 자아비판과 민족적 주체성을 되찾게 하려는 안간힘이 아니었을까?

충렬왕 21년(1255)에 그의 제자들이 군위 인각사에 세운 고려국 의종왕조 조계종 인각사 가지산하 보각국준비에 의하면 개승장사, 선문열승사등을 저술하였으므로 전란한 불사 또한 80권이 넘었다고 하나 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는 배불승유정책으로 이조매의 조계종에 불교의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보존되어진 것은 승려인 저자가 잘못된 불교를 감추려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현했으며 권위, 왕족중심에서 벗어나, 민중적-입장에서 잘못된 통치자를 꾸짖고 버릇을 고친다는 내용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란과 수난이 거쳐 갔음에도 누락에 의해서 고이 간직돼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라불교의 출발 방법과 태도에 대해 몇가지 검토하고 들어가자 한다. 불교가 들어오기전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신라도 지연승배와 조상을 숭배하는 토속신앙이 강하게 사회를 지배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유독 신라에만 그 저항이 남달라 불법에 제일 적대시 되는 살생 그중에서도 사람을 살생하면서까지 불법의 진리를 시험하지 않았던가? 이는 황권으로부터 경요된 신앙이 아니고 민중으로부터 선택된 신앙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경주에 남아있는 수많은 불



3 신라의 민중불교



▷우리민중의 모습을 담은 선방굴 석조삼존불의 일부.

상과 탑의 모양이 인도나 중국의 모양을 흉내내지 아니하고 우리 민중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우리 신과 들에 맞도록 모양과 배치가 형성된것도 그 한 보아 남길수 없는 사실이다.

당나라에 유학가서 불법을 구하는 것을 끝내 거부한 원효는 스스로 공부하여 크게 깨달은 후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말년에 가서는 생철불교 대중 불교 곧 민중불교를 위한 남긴 업적이 더욱 돋보이지 않았는가. 요석공주에게 자기몸을 보시 하여 설총을 얻은후 스스로 속부(俗婦)로 바꾸어 입고 소성거사(小姓居士)라 칭하고 수많은 부락을 노리고 춤을 추며 돌아다녔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많은 민중들에게 불타의 이음을 알고 나무(南無)의 칭호를 부를수 있도록 하였으니 불교를 민중일승히 뿌리내리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불교는 민중으로부터 선택되고 민중으로부터 실전될때 참다운 힘과 위력이 나온다고 본다.

불수 없다. 절집 배치와 탑의 위치도 내담 네방 하지 아니하고 참배의 대상으로 좋은 위치가 있으면 서로 합심하여 건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하니 모시는 부처님도 금빛 화려한 금동부처님이 아니라 서있는 바위에 집없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소원을 빌고 구원을 청할수 있는 가장 민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조각하였으리라.

옛부터 믿고있던 바위신앙과 불교사상을 결부시켜 바위속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열원하고 빌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다시 나오실까 다시 들어가신다. 이오 저연스러운 믿음이 형성되었다.

또한 유서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예를 몇가지 들어 보면 신문왕은 아버지 분무왕의 유언을 받들어 삼랑사에 머물고 있는 정홍스님을 국사로 삼고 그를 청하여 범문을 자주 들었다. 궁궐로 행차하는 모습이 화려하기 그지 없었던 정홍 국사가 어느날 금빛 관란하게 장식된 말을 타고 길을 나서는 데 길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 숙여 참배드리고 있을때 어느 초라한 수도승 하나가 떨 시키는 눈빛으로 그를 흘려보냈다. 수행하던 중자들이 크게 웃기기를 '대는 승려로서 국사로 접견하지 아니하고 금하는 물건을 지고 다니느냐?'하니 그가 말하기를 '양쪽다리 사이에 살아있는 고기를 끼고 있는 자도 있는데 등에 마른고기를 지는 것이 흠이 될게 무엇인가?'하고는 말을 마치고 바로 남산으로 가버렸다. 주변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정홍국사는 사람을 시켜 뒤따르게 하였는데 거사는 남산 문수사 문밖에 이르러 땅주리를 버리고 숨어버렸는데 지팡이는 문수사앞에 있고 마른 생선은 소나무 껍질이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정홍은 크게 탄식하기를 '남산의 대성이 와서 내가 말올라고 사치하여 승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크게 경계한 것이다'하고는 종신토록 말을 타지않고 근검절약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또 효소왕은 방덕사에서 큰재를 올리기 위해 공양을 준비하였는데 초라한 비구사 나타나 청하기를 '빈도 비구사 제이 참여하고자 합니다'하니 왕이 말하기를 '어느곳에 머물고 있는가?'하니 '비파암에 있습니다'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 곳에서 나가 국왕이 친히 공양

그러면 이제 불교문화 속의 민중들의 생각은 어떻게 표현되고 형성되었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그렇시 불교의 기도처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었을 것이다. 왕궁을 중심으로 귀족이나 왕족들이 쉽게 나들이할 수 있는 평지에 넓은 땅을 정비하여 웅장하게 세운 황룡사, 분황사, 황복사등 거대한 사찰에 누추한 민중들은 겁에 질려 쉽게 출입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적이고 독자적이었던 그 당시 민중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처를 찾아 가까이 자리잡은 남산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곳을 민중들의 이상적인 기도처로 자리잡아 그들의 한을 담은 갖가지 민중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다.

수많은 남산의 절들을 향한 길들은 수레나 가마가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 건축을 위해 쌓은 축대는 많아도 길을 내기위해 축대나 다리를 놓은 흔적은 없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둘러친 울타리나 문을 세운 흔적도

하는 재에 참석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하니 그가 웃으면서 답하기를 '배해가서도 역시 남에게 전신석기를 공양했다는 말을 하지 마소서'하고는 몸을 굽추쳐 공중으로 올라 남쪽으로 가버렸다. 임금이 놀라고 무찌러워 달려가 찾아보게 했더니 남산 삼성굴 바위에 지팡이와 바릿대를 두고 숨어버렸다고 했다. 임금은 그곳을 향해 예를 올리고 비파암 아래에다 석가사를 짓고 지취를 감춘곳에 불부사를 지었으며 그후 임금은 사람의 걸차림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다고 한다.

서남산 배리란 마을 이름도 이와 비슷한 전설로 생긴 이름이다. 애장왕때 정승스님이 거저여자가 추운 겨울날 아이를 낳고 있는데 자기 웃을 다 벗어준 결과 그 선행이 하늘에 닿아 훗날 왕사가 되었는 것이나 경덕왕때 지나친 욕심을 부려 딸을 아들로 만들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하여 소원을 얻었으나 결과는 큰벌을 받는 것으로 된 이야기 등 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권력과 높은 직위에 억눌려 탄압받던 민중들은 직접 전의하고 함부로 말할수 없으므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 잘못된 그들을 꾸짖고 고치고자 열원했기 때문에 자기를 담은 불상을 조각하고 남산을 중심으로 수많은 민중불교문화를 창조했다.

김윤근 (신라문화 동인지 회관-전 내남중 교사)

루즈벨트의 관심

김영홍 (법정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 가운데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중 인기가 상당히 높은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다. 그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끈 비결로서 흥미로운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다.

루즈벨트가 사환에 이르기 까지 널리 자기 주위의 사람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표명한 사실은 다음 일화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어느날 흑인사환 제임스 에모스의 아내가 대통령에게 메추리란 어떤 새냐고 물었다. 에모스의 아내는 메추리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에모스의 처에게 메추리는 이러이러한 새라고 말아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루즈벨트의 처택 한 구석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는 에모스의 집에 전화가 걸려 왔다. 에모스의 처가 전화를 받고보니 상대방은 대통령 자선이었다. 대통령은 전화를 통하여 지금 매마칠 그쪽 장부에 메추리 한마리가 남아 있어 있으니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상하게 알려 주었다.

이 작은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인품과 인간애가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현대인들이 타인 특히 자기보다 못하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친절히 무관심한 풍조가 만연되어 있

는 상황을 생각하면 루즈벨트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돋보인다.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서 유독 타인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사람들이 대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아닌 한가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수진 학생이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할 일만 하고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지 아니한다. 동료나 친구에게 기본 일이 생겼던 출근 일이 생겼던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좀 더 적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저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다.

대학에서 이와같은 생활방식이 일반화된 것은 이기주의적 세대의 영향도 있지만 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맞도 무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 사교에 기초하고 협동의 영광보다는 개인적 우열을 가려야 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라는 조직은 따스한 정보다는 삭막한 느낌이 훨씬 진하게 감돌게 된다. 교수와 교수 사이에 원숙한 동료애가 짙기도 합치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끈끈한 우정이 자리잡기도 힘들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사이에도 옛날과 같은 사제지간의 호호한 정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대학사회도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라면 좀더 사랑과 우의가 넘치는 사회로 변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런 희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학인 모두가 루즈벨트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상기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읽을수 없는 한편의 책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나의 책... 나의 영화

'오발탄'등 제작에 영향줘

를 펴는듯 싶었다. 그의 인간심리서는 소름이 기질만큼 심오했고,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시대사회의 압력과 죄악의 비밀스런 모습을 파헤쳤을뿐만 아니라, 그속에 숨은 한가닥의 밝은 빛도 감지해냈다.

한편 '죄와 벌'을 읽으면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상심리속에 한없이 빠져들면 들수록 끝날 머리속에서 만들어진 연극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역할을 맡아 열연하는 환상이 절기도 했다.

해방후 33년을 넘어 서울에서 대학시절을 보냈다. 나는 피에르-슈날감독, 피에르-브랑장 주연의 1939년작 작품, 프랑스 영화 '죄와 벌'을 비로소 볼수 있었다. 이 영화의 여운은 한없이 나

를 접아 매어 텅빈 의자뒤에서 서언까지 일어설줄을 모르게 했다. 재탕, 삼탕, 번두리 극장에서 오랑하는 들어진 필름까지 열베번을 볼정도였다.

후배영화인이 지니는 희색의 공간속에서 움직이는 주인공의 어둡고 스산한 연기는 내가 환상에서 연기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피에르-슈날감독의 뛰어난 영상처리하는 소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거둬하게 했다.

교수진이 월동후 종양된 동국대학에서 나는 그 문학적인 위구속에서 희곡문학을 전공하려 했고 극작가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 한편의 소설, 이 한편의 영화는 나의 생애를 지배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나의 영화작품의 경향, 즉 '오발탄' '영여인간' '막' '초로' 은 손님들 '사람의 아들' 등 그 어두운 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두운 영화감독'이 라는 대명사를 안겨주기도 했다.

유현복 (예술대 연영과 명예교수)

무·한·책·입·주·의 서비스/품질/환경

NO

실험정신이 있는 젊음의 공통점은 결코 '노우'라고 대답하지 않는것...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태평양의 실험정신!

“잘 안되겠는데요” “글쎄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시도조차 해 보지 않고 지레 포기하고 미는 건 젊은이의 자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딪치고, 좌절하고, 극복해서 결국 남이 해내지 못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젊은이의 자세이며, 젊은이가 가져야 할 실험정신입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 기회를 주시죠.” 태평양은 이런 젊음, 이런 실험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실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업계 최초로 시도한 무한책임주의 선언— 도쿄나스, HGSQ 등 산물결의 자체개발— 그리고 세계유수의 정업회사의 반열에 들어선 것 등이 모두 이 실험정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실험정신으로 시작합니다. 무한책임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태평양

태평양가족 : 태평양 • 태평양제약 • 태평양패션 • 태평양생명보험 • 태평양종합신업 • 태평양금속 • 태평양시스템 • 태평양개발 • 동방기회 • 태평양폴리스

영화의 패러독스

문화제국주의 시대의 삶의 검토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고수만이 살길

방화가 죽어간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동의 위기에 직면한 영화인들

입을 어느 정도 제한해왔던 것이 무너지고 영화가 통폐합 들어왔다. 물론 정부는 통폐합이었던 한 국영화 제작을 고무하기 위해 자유로운 제작, 즉 독립 프리픽션과 소재의 자유를 보장하는 식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 영화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유경쟁의 시장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군사 정부하에서 소재의 제한이나 심의제도의 엄격함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새로운 획기적인 자본이 유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세적인 영화제작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다. 자유 경쟁이란 미명 아래 외국 영화상품이 양담배, 농산물의 수입 압력과 더불어 같이 취급되어 통상압력의 차원으로 국가는 그들에게 길을 터

지배하고 있다. 말이 자유경쟁이지 통상압력에 의해서 외국영화를 무관정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마도 못하는 어린이를 달리기 경주에 내보낸 것과 같은 한심한 일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관객이 얼마나 되며, 사실 관객은 그러한 전문적인 영화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결과 우리 관객들은 외국영화, 특히 미국 오락영화의 취향에 길들여져 갔고, 한국영화의 제작감소와 더불어 한국영화 흥행의 부진, 우리 관객들의 서구적 문화 중독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보루는 대통령과 장관의 명에 의해 시행되는 강력한 자국영화 보호정책인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제도의 철저한 고수이다. 이 의무상영일수제도의 취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화적인 것이며,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 할 때, 그 제도의 활용과 엄격함은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할 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그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여 우리를 경악케 했다. 그에 대해 영화인협회의 총사퇴와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 문체부에 대한 항의 및 결기대회가 조속히 이루어지면서 한국영화계는 또 한번의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보루는 대통령과 장관의 명에 의해 시행되는 강력한 자국영화 보호정책인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제도의 철저한 고수이다. 이 의무상영일수제도의 취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화적인 것이며,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 할 때, 그 제도의 활용과 엄격함은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할 때이다.

화제의 책 화제의 작가

'개' 소재로 세태풍자

안만식시인 '시를 쓰는 개'출간 자칭 '배설문학' 쓰는 다작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똘, 똘이 별것이당가요.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넘치도록 자물쇠를 팽팽하게 부풀어서 자연스럽게 남 눈치보지 않고 쉬 하는 거 그게 바로 시 아니당가요?"

지난 9월 15일 시집 '시를 쓰는 개'를 펴낸 안만식시인의 '시를 쓰는 개' 전문이다.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경비로 근무하면서 "문학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를 쓰며 살아간 안만식시인. 그는 이번이 펴낸 시집을 쓰는 게까지 모두 3권의 시집을 세상에 발표했다.

이번 시집에 실린 작품은 모두 '개'를 소재로 한 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배꽂이를 버려 벌금을 내는 일부터 공직자 재산공개까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운이 안 좋아서"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유실에 흔회하는 "개"를 등장시킨 것.

안시인은 국제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이웃의 고통과 소망을 담은 시를 쓰고 싶다"는 안시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경비직이 밤이 새도록 시를 고민하고 연구하기에 좋은 직업이라며 호탕한 웃음을 보인다.

시집을 펴내고 쓰는 시간이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많은 탓에 안시인은 많은 양의 시를 쓴다. "너무 쉽게 시를 쓰는 것은 아닌가 고민도 하

지만 그만큼의 성장도 따를 것"이라 기대하는 안시인은 자신의 시를 '배설의 문학'이라 이름짓는다. 쓰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고 그때마다 한편의 시를 쓰게 된다고.

안시인은 서초동 꽃마을 사람들 을 찾아가 "몸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연을 하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명목적인 무시와 분노는 서로 잘알게 될까 사려깊게 건넌다.

안시인은 시집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팔리고 있는 책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한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체포되지 않는 시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안시인은 시를 볼 때나 쓸 때나 가장 가까운 책임은 읽는 사람에 있다고 말한다. "대학 나와서 왜 경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도 풀이할 필요 없이 "문학을 읽어야 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지만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라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원고지를 채워나간다.

"자기의 길을 가면서 자기의 시를 쓰는 사람이면 누구든 좋습시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모두 좋아한다는 안시인은 작가들의 이름을 대느라 두손을 모두 꼽아주며 그들의 문학을 애기한다.

"시집 더 읽으면서 공부해 나가야지요"라고 말하며 안시인은 또 시집 고를 격정적이다.

(이유리 기자)

동아리탐방

경주 '목탁소리 손모음'

"똘이 지는 것이 무상이라면 꽃이 피는 현상 또한 무상한 것입니다. 인생 무상이란. 우리는 흑무상을 허무적인 도피감으로 여기진 않나?"

일상생활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불교용어의 바른 인식을 퍼하기 위한 어느 해설자본의 한 부분이다. 이 자료의 주인공은 다들아닌 불교바르밀기운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불교학과

내 동아리 '목탁소리 손모음'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학내 곳곳에 '할나, 인연, 갈로, 이수라...' 등의 불교용어를 해설한 대자본이나 화장실의 거울들에 부착된 개송죽지를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여름방학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목탁소리 손모음은 2학년 2명, 1학년 3명으로 구성된 인원이 극소수이며 도서관 등 동국법률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

"불교용어와 계승전파에 주력할터"

운영기금 - 불교어원자료 확보에 고심

서도 그들의 끊임없는 활동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본교는 불교종단대학의 건학이념을 내세우면서도 불교이해를 위한 여타 재단여건이 부재한 상태에 서 1학년 교양과목에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를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불교를 종교로서 대중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응희 진행되는데 이점은 확고하게 안고 있어 작은 충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며 알게 모르게 학우들 사이에서 목탁소리 손모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했다.

"우리 민족이 불교를 오랫동안 신봉해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불교용어를 쉽게 지나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교용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돕고 가가이에서 불교의 계승을 접하도록 하기위해 뜻있는 몇몇이서 작은 활동이지만 시작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공동회장의 진언은, 오종정(불교2)은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활동기간이 다소 짧고 학우들에게 인식의 폭이 넓지 않아 동아리 운영경건상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한다.

작게는 운영기금의 부족에서부터

크게는 불교어원에 대한 자료부족을 들 수 있다. 불교어원도 안되는 자료를 뒤적이며 계승들을 찾고 불교용어에 관한 해설자본을 쓰다 보면 열악한 불교계 서적의 현실까지도 감지하게 된다고.

지금까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불교용어와 배경과 사상을 해설하는 자료, 불교어원을 설명한 개송죽자들을 부착하는 정도의 활동이지만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고 인원이 확충된다면 지금까지 자료로 해설된 불교용어와 계승들을 모아 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불교지식의 체계적 이해를 돕기위한 자체내의 학우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자그마한 그들의 움직임이 고요한 산간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소리처럼 은밀하게 수놓아질때까지 그들은 지금 손모음의 연속으로 되어가고 있다.

(황)

이슈

▲타 잡는 데 소 잡은 새로운 도약에 걸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7일까지 9일간 진행된 대전엑스포 총 경비가 2조원이라고 한다. 엑스포 국빈인 동은 한 번 구하는 일없이 개최 결정된 뒤 성공개최는 국민의 책임이라던 정부태도를 생각하면 2조원이란 예상치출에 화가 나기까지 한다. 엑스포가 끝나고 정부는 성공작이라고 자랑하기 급급하다. 1천4백만이 관람해서 당초 예상 관람객수인 1천만을 넘었고 1백8개 국가와 33개 국제기구가 참가해 엑스포 1백50년 역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개최 당시 정부가 주장한 엑스포개최 효과는 이 행사만 개최하면 아시아 4대륙에서 탈락한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달콤한 꿈을 국민들에게 갖게하기 충분했다. 각 선진국

들의 최첨단 기술 전시의 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을 무수히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홍보하고 수출시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한 대만 수교단절이후 줄어들어 외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다. ▲결국 결과는 집안전적으로 끝났다. 미국관과 일본관 등의 선진기술이 선보일 것으로

집안잔치

기대했던 국제전시장은 문화전시장에 되었을뿐 첨단과학을 보리라 기대에 부풀어 맞서기만 기다리던 관람객들이 실망하고 되돌아 실정도로 부실했다. 외국인 바이어는 커녕 순수관광객도 목적으로한 외국인 관람객도 전체 관람객5%선인 70만명에 그쳤다. 첨단기술을제니 한국과학발전의

홍보의 장이니 하는 말은 외국기술을 70% 수입해다들은 관람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과학의 의식을 심어주었다는 조직위의 평가는 그나마 성과로 남는다. 그러나 미래의 꿈을 위해서라면 GNP5%에도 못미치는 교육예산 하에서 빈번한 실험기재도 못갖추는 현교육부도 개인에 기탁과 재정지원에 신경써야 할 일이다. 스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정부는 삼평인을 일찍 더 드린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올림픽의 예가 아니라도 행사개최는 국민의 동의없이 정부단독으로 결정하고 몇조원의 국민세금이 소요된 뒤 성과가 없으면 화살은 국민과 기업에 퍼져지는 것이 정부의 과거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국민은 이제 정부가 것을 지저저 뒤 책임지는 역할을 사양한다.

(*)

새내기와 터줏대감의 한집살이

화학공학을 전공한 선경인드스트리 직물공장 강진희씨의 폐기만하던 신입사원시절은 솔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소한 호칭에서 일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급자로서 나이많은 현장사원들과 함께 생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 결혼때문에 방 구하느라 애를 먹던 무렵— "강가사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집에 들어와 사는 것은 어때요?" 이런 제의를 한 건 뜻밖에도 같은 분임조의 터줏대감이자 그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했던 조국현씨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내기과 터줏대감의 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근무중에는 물론 퇴근후에도 속깊은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가사 생각이나 의견에 동감하는 것도 있었지만 현장경험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조금 심하게 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회사가 오늘에 이른 것도 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형님같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노사관계는 서로 감동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관계입니다. 마치 한술밥을 먹는 한식구처럼 같이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현씨와 강진희씨 가족의 단란한 한때

SUNKYONG 鮮京그룹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한솔반 한식구)

한솔반 한식구는 노(勞)와 사(資)가 같은 회사에서 같은 목적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공존공영의 일침처럼 따뜻한 이목을 내어 함께 나누고,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선경의 노사 화합정신입니다. 이를 통해 선경의 구성원들은 한솔반 한식구처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더욱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